

자영업 취업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연구원

mj.sohn@samsung.com

I. 최근 자영업 취업현황

1. 최근 비임금 근로자¹⁾ 규모가 축소

- 최근 일자리 창출 폭은 20만 명 내외로 정체되는 모습
 - 2008년 경제성장률이 4.7%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폭은 20만 개 초반대로 예상
 - 일자리 창출 폭 추이는 2004년 41.8만 개 이래 2005년 부터 30만 개를 하회하면서 정체되는 모습
 - 이는 구조적으로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2008년 경제성장이 제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자리 창출 폭을 제한하기 때문
 - 취업유발계수 추이(명/10 억 원): 26.5(1995년)→ 19.4(2000년)→ 16.9(2003년)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및 동대학교 대학원 졸업. 미국 Tulane University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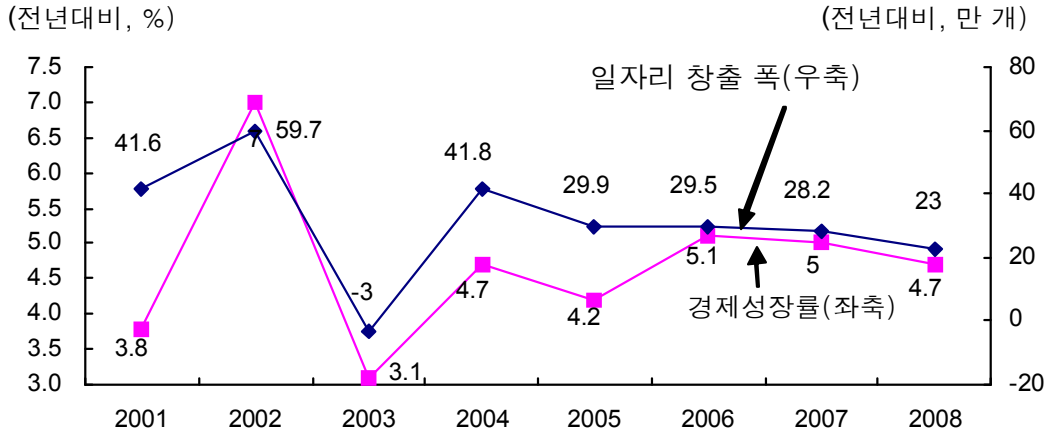
현)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연구원.

• SERI 전망 (공저, 삼성경제연구소, 2004, 2005, 2006, 2007)

•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공저, 삼성경제연구소 2006)

• Currency Crisis and the Korean Economy (with Mun-kun Cheong, Vanderbilt University GPED, 2006)

1)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 중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자영업주(한 사람 이상 유급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고용주와 혼자나 가족과 함께 자영업 활동을 하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자신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주당 18시간 도와준 사람)의 합으로 표현.



주: 2008년 수치는 삼성경제연구소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ECOS DB 및 통계청 KOSIS DB에 의거 작성
 <그림 1> 최근 경제성장률 및 일자리 창출 폭 추이

- 최근 일자리 창출 폭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자영업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가 감소하고 임금근로자²⁾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 최근 들어 비임금근로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 비임금근로자 증감분(전년대비, 만 명): -25.2(2003년) → -7.3(2004년) → 0.8(2005년) → -7.1(2006년) → -13.8(2007년)
 - 임금근로자도 고용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상용직 근로자 위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감분(전년대비, 만 명): 52.5(2003년) → 43.4(2004년) → 26.7(2005년) → 37.4(2006년) → 41.6(2007년)

2) 임금근로자란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지칭

2. 최근 자영업 부문은 구조조정을 경험

-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 등 생계유지형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주 형태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
 -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상당수가 영세한 자영업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한편, 농림어업도 취업자 중에서 61.2%(2004년 기준)가 자영업주로 분류
 - 2006년 농림어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 중 자영업주 비중은 2004년 대비 두 부문 모두 하락
 - 2006년 농림어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의 자영업주 비중은 2004년 대비 각각 2.8%p, 1.9%p 하락

〈표 1〉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주 취업자의 주요 산업별 비중

(단위: %)

	2004년		2006년	
	자영업주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임금근로자
농림어업	23.6	0.6	20.8	0.8
건설업	6.2	9.4	4.8	6.0
제조업	7.3	23.0	12.1	28.5
도소매 음식숙박	30.9	13.4	29.0	16.6
전기운수통신금융	8.9	13.8	9.1	1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기타	22.8	39.1	24.2	36.7

주: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2004년부터 조사를 시작
 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DB 분석결과에 의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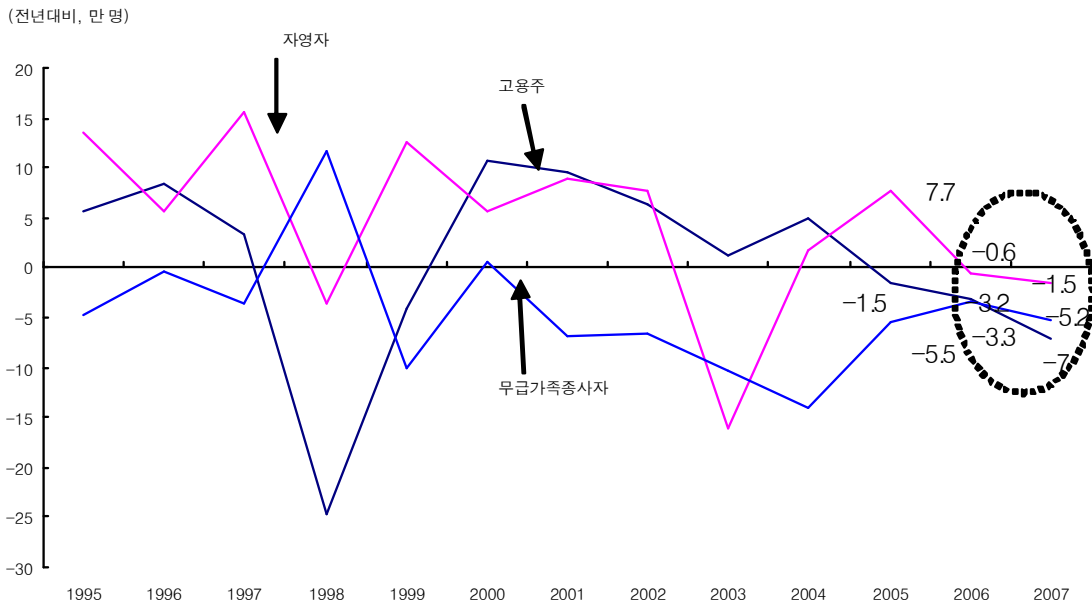
- 2006년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축소현상은 과거와는 다른 변화로 판단
 - 1990년대 초반 이후 비임금근로자 수가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외환위기 시기(1998년), 내수침체(2003~2004년)이래 세 번째
 - 과거 두 시기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경기침체기로 인한 결과였다면 2006년 이래 최근의 모습은 성장을 동반한 자영업 부문의 질적인 구조조정을 반영

<표 2> 외환위기, 내수침체기, 최근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증가율 등 비교

	외환위기	내수침체기		최근 구조조정	
	1998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7년
경제성장률(%)	-6.9	3.1	4.7	5.1	5.0
민간소비증가율(%)	-13.4	-1.2	-0.3	4.5	4.5
설비투자증가율(%)	-42.3	-1.2	3.8	7.8	7.6
비임금 근로자 증감분(만 명)	-16.9	-25.2	-7.3	-7.1	-13.8

자료: 통계청 KOSIS DB,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 또한, 최근 비임금근로자의 구성항목인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의 규모가 2006년 이래 모두 축소
- 이렇게 비임금근로자의 구성항목 모두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때에도 발생하지 않은 이례적인 모습



주: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

자료: 통계청 KOSIS DB에 의거 작성

<그림 2> 최근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증감분 추이

3. 자영업 부문은 최근까지 중·고령 노동력을 흡수

- 40~50대 중고령 노동력이 자영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50%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
 - 2006년 중 전체 자영업주에서 40~50대의 비중은 56.8%로 전년대비 5.8%p 상승
 - 전체 자영업주 중 40~50대 비중(%): 51.3(2004년)→ 51.0(2005년)→ 56.8(2006년)
 - 전체 자영업주 중에서 40~50대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노동력이 자영업 부문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

〈표 3〉 2004 2006년 연령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비중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임금	자영업주	전체	임금	자영업주	전체	임금	자영업주	전체
15~29세	21.7	2.7	19.1	24.6	3.4	20.5	22.2	4.8	20.4
30대	36.0	23.9	28.0	31.3	17.8	22.4	30.8	20.2	24.2
40대	25.5	34.7	21.1	29.2	30.7	22.8	31.3	36.0	26.1
50대	11.3	16.6	12.5	11.6	20.3	12.6	10.8	20.8	12.2
60대	5.1	17.8	11.5	2.7	18.6	12.0	3.8	11.2	9.0
70대 이상	0.4	4.2	7.8	0.5	9.2	9.6	1.0	6.9	8.0

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DB 분석결과에 의거 작성

- 40대 이상 중고령 근로자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어려움과 미래불안 등으로 자영업 형태의 취업을 많이 선택한 것으로 추정
 - 40대 이상 노동력이 자영업 형태로 취업을 했다는 것은 장기간 근속이 어려운 기업현실을 반영
 - 물론, 이런 변화에는 40대 이상의 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 반면, 외환위기 이후 20~30대는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자의 취업상태를 선호하는 모습
 - 2004년 노동패널조사에 의하면 20대의 자영업 사업기간은 1.51년으로 사업기간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것으로 조사

<표 4> 연령대별 자영업의 사업기간(농림수산업 제외)

(단위: 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업기간	1.51	3.55	6.78	11.21	14.3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4.

4. 자영업 부문 소득분포는 임금근로자 보다 양극화가 심화

- 자영업주 형태로 취업한 사람의 가구소득이 임금근로자 형태로 취업한 사람의 가구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양극화
 - 2006년 월평균 가구총소득 기준, 자영업주 가구총소득의 소득격차는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큰 편으로 조사
 - 월평균 가구총소득이 75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자영업 주의 12.1%를 기록, 임금근로자(5.6%)보다 6.5%p 상회
 - 한편, 가구총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 자영업 주의 17.5%로 나타나 임금근로자(9.3%)를 8.2%p 상회
 - 자영업주의 소득에 관련된 문제는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이 많은 점에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 상존
 - 상대적으로 소득이 매우 높은 계층도 임금근로자보다 많아 소득분포가 중간 계층이 희박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조밀한 상황

<표 4>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월평균 가구 총소득 비중 비교(2006년 기준)

(단위: %)

가구총소득	150 미만	150~300	300~450	450~600	600~750	750이상
임금근로자	9.3	31.7	29.4	15.3	8.8	5.6
자영업주	17.5	31.1	19.3	10.9	9.1	12.1

주: 소득은 명목소득 기준 (만 원)

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DB 분석결과에 의거 작성

II.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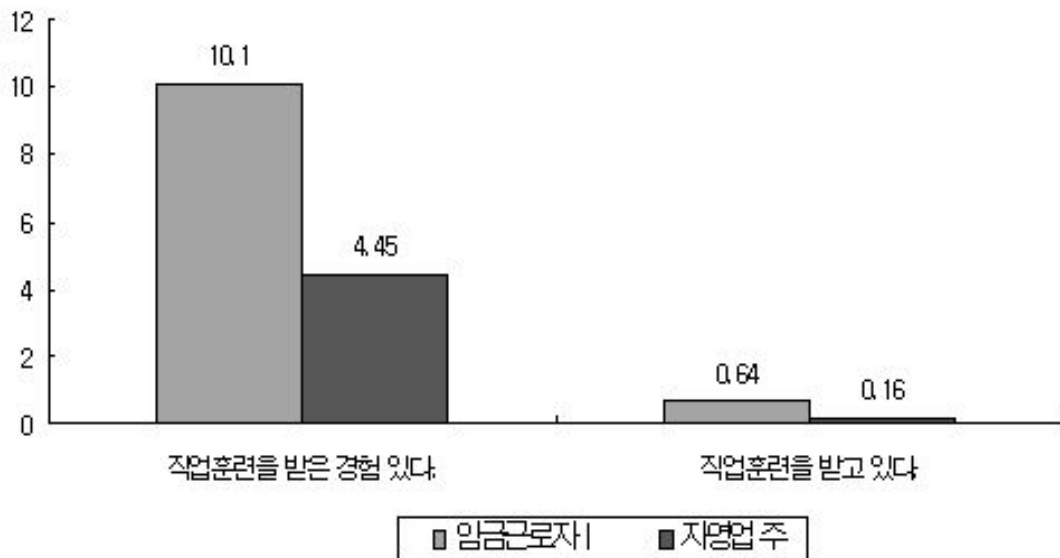
1. 중·고령 노동력의 임금근로자 취업기회를 확대

- 중·고령자를 위한 임금근로자 형태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도록 기회를 확충
 - 임금과 직무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하여 나이나 직급이 아닌 정확한 직무평가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로 중·고령 노동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
 - 직무평가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가 마련되면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직무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런 근로문화를 확산할 필요성 상존
 - '진로상담기능'을 보완하고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시 임금보조금 지원 등 정책서비스를 제공
 - 진입하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영업 부문에 진입하려는 중·고령 노동력의 자영업 진입을 부분적으로 방지
- 자영업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임금근로자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 도·소매 음식숙박업 종사인력의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인력을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으로 흡수
 - 이들 부문의 고용비중은 한국의 경제규모와 복지수요를 감안해 볼 때 적정 고용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판단
 - 자영업주의 직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전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
 - 소상공인 지원센터(중소기업청)와 고용안정센터(노동부)의 분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일원화하는 노력이 요구

2. 자영업 지원책은 선별된 계층으로 한정

- 자영업 지원정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올바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 자영업 부문 대책의 경우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

- 자영업주는 소득격차가 큰 집단이고 적정규모를 상회하면 생산성 저하와 부실경영의 문제가 대두
 - 향후 여성 및 고령층 등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자영업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
- 구조조정의 여건조성과 함께 자영업 부문 내의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원확충과 세율 재조정이 필요: 담세능력의 격차확대를 보완
- 향후 부실한 자영업 부문의 퇴출을 지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 컨설팅, 교육, 보증제도의 개선 등으로 정책방향을 수정
 - 지원의 선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영업 부문의 통계자료를 보강하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
 - 구조조정시 퇴출되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범위와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이 선결과제
 - 소자본 창업경영에 대해 희망자에게 일정기간 위탁교육과 컨설팅을 받도록 준비
 - 현재 자영업주들이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적 능력향상의 기회에서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 2004에서 재인용
 <그림 3> 직업훈련의 경험(농림어업 제외)

참고문헌

- 손민중, “최근 자영업 취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14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7. 6.
- 통계청 KOSIS DB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호
- 한국은행 ECOS DB
-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DB